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대한불교조계종

목 차

교시와 인사말

- 04 종정교시
- 06 총무원장스님 인사말

한국불교와 조계종

- 10 한국불교
- 12 대한불교조계종
- 14 조계종의 현재
- 16 중앙종무기관 조직도
- 18 삼보륜

출가교육 · 수행

- 22 출가와 수계
- 22 스님의 일과
- 23 종단 승려교육
- 24 선원에서의 수행 과정
- 26 한국의 간화선

사찰

- 30 한국 사찰의 구조
- 32 조계종 주요 사찰
- 34 조계종 교구본사

불교문화유산

- 46 한국불교미술의 역사
- 47 성보와 문화재
- 48 세계문화유산

신도와 신행활동

- 60 신도교육과 수계
- 60 법회와 수행
- 61 신도신행단체

불교문화진흥

- 65 템플스테이
- 66 사찰음식
- 68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 69 부처님오신날과 연등회

대사회활동

- 74 환경보존활동 및 탄소중립활동
- 75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활동
- 75 이웃종교 및 종단교류
- 76 사회복지활동
- 79 남북불교 교류 및 지원활동
- 80 국제교류 및 국제포교지원

교시
·
敎示

常要清規

必須和睦

普利群生

曹溪宗 宗正 性坡

常要清規

어느 때나 청규를 굳게 지키고

必須和睦

모름지기 대중과 화합 이루며

普利群生

널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性破



총무원장스님 인사말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한국 최대 종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중지로 하고 있으며, 소의경전은 금강경(金剛經)과 전등법어(傳燈法語)입니다. 참선 수행을 근본으로 간경과 염불, 주력 수행을 포용하여 통불교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중 수행 '안거' 전통을 유지 계승하여 여름과 겨울 각 3개월간 약 2,000여 스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한국불교는 전통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참선과 명상, 사찰음식이라는 불교의 고유성까지 어우러져 독특한 복합유산의 가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보유한 자연, 문화, 종교자원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한국의 국립공원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문화관광의 대표적인 브랜드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해인사 장경판전, 불국사와 석굴암, 한국의 산지 승원, 연등회와 직지심체요절 등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자랑입니다. 조계종은 한국 문화재의 60%에 달하는 불교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현대에 맞게 새롭게 창달하여 전 세계인이 한국불교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한국 내 타종교와의 조화와 평화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종교분쟁이 없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와 자비로써 노인, 장애인, 노동 약자, 이주민 등 약자를 보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환경 위기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상을 청안하게 하고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적과 이념, 그리고 종교는 다르지만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자비와 평화의 정신으로 세상의 벗이 되어가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진우





한국불교와 조계종



한국불교는 1,7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은 대한불교조계종이며, 조계종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으로 받고 있는 간화선 수행은 ‘화두’를 들고 하는 선 수행법으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독특한 수행법이다.



한국불교

부처님께서 전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인 불교는
삼국시대인 4세기경에 한반도에 전해졌다.
이후 1,700년 동안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종교로 평가받는다.

불교는 이 땅에 전래된 이후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에서 모두 국교(國敎)로 인정받았다. 특히 신라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냈고, 결국 삼국통일의 밑거름이 됐다. 당시 활약한 원효, 의상, 자장과 같은 고승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중생들의 마음을 치유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전국의 명산에 사찰을 창건하여 불교의 진수를 널리 전하고자 했다.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는 문화·예술 방면에서도 발전을 이끌었다.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조성했고, 불교 경전을 보급하기 위해 인쇄문화를 발전시켜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 문화를 이룩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에서 융성하던 참선 수행법을 도입해 선종(禪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신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됐다. 통일신라가 막을 내린 이후 다시 어지러워진 시대, 후삼국을 통합하고 고려를 개국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상적 동력이 되기도 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역시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특히 고려왕조는 도선 국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불교에 기반한 문화·예술을 가장 융성하게 키워냈던 시대다. 외세의 끊임 없는 침략이 이어지던 시기에는 팔만대장경을 조성해 평화를 기원하였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를 간행했으며, 팔관회나 연등회와 같은 불교문화축제를 열어 국민 통합의 기틀이 됐다.

고려의 뒤를 이어 등장한 조선왕조는 유교(儒敎)를 나라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당시 불교에 대한 억압정책에 따라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불교는 산중으로

밀려나 고립됐고, 승려들은 가혹한 탄압을 받기도 했다. 반면 깊은 산사(山寺)에서 수행 공동체를 이뤄 수행의 전통을 더욱 성숙시키고 민중과 함께하는 종교로 거듭난 시기가 조선왕조시대이기도 하다.

근대로 접어들며 일제 주도의 불교 왜색화를 통한 민족정서 말살 정책으로 불교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대대적인 승단정화운동을 전개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했고, 이를 따르는 승려들이 결집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을 출범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신라 말기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선(禪) 사상은 민족의 정신문화를 일신한
가치산문(迦智山門) 등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대한불교조계종(大韓佛教曹溪宗)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계종의 종조는 이 땅에 선을 처음 전했던 도의 국사(道義國師)이고,
고려의 보조 국사(普照國師)와 태고 국사(太古國師)를 중흥조로 삼고 있다.

조계종은 본디 고려불교의 선종을 대표하는 종파였다. 그러나 조선 세종 대에 이르러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됐고, 연산군 대에 이르러서는 해체되는 법난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이어진 왜란 당시 서산, 사명 등의 고승들이 승병으로 큰
활약을 펼쳤고, 이런 불교의 모습에 감응한 불자들의 외호로 수백 년간 산사에서 법맥
이 전승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교종의 맥을 섭수하여 선교가 융합되는 종풍이 만들
어졌다.

조선시대 실시된 승유억불정책은 불교를 크게 위축시켰다. 오랜 시간 승려의 도성 내
출입이 금지됐고, 불교는 산중에 격리됐다. 승려들의 도성 출입이 다시 허용된 것은
1895년에 이르러서다. 1899년에는 해인사에서 경허 선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이 일어
났다. 이를 계기로 근대의 선풍이 진작되기 시작해 종단 재건의 사상적 기초를 다졌고,
원종(圓宗)과 임제종(臨濟宗)을 세워 교단 재건과 불교의 도시 진출을 자주적으로 시도
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무위에 그쳤다.

이에 용성, 만해와 같은 고승들이 일제 통치에 저항했으며, 1921년 선학원의 창립과
1929년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 1937년 총본산 건설운동 등을 통한 한국불교계의
독자적인 교단 건립운동 등이 전개됐다. 마침내 1938년 서울 종로에 총본산으로서 조계

* 조선 전기에 있었던 불교종파인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2개 종파

사 대웅전을 건립했다. 1941년에는 일본불교와 구분되는 한국불교 전통의 조계종을 복원해 조선불교조계종을 출범시켰다. 이것이 한국불교계의 첫 합법적인 종단이자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의 전신(前身)이다.

1945년 해방 직후에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던 선승들에 의해 정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는 일제 식민지 불교정책의 유산이었던 대처승에 대한 정화운동이었다. 1955년에는 비구승단 중심의 조계종이 성립됐고 1962년 4월 11일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통합종단은 도제양성(徒弟養成)·역경(譯經)·포교(布教)를 3대 지표로 천명했다. 특히 1947~1949년 봉암사에서 선승들이 모여 ‘부처님 법(法)대로 살자’는 기치 아래 결사운동을 제창한 것이 종지중풍과 의례형성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조계종의 현재

조계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직지인심(直指人心), 건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중지로 하고 있다. 소의경전은 금강경(金剛經)과 전등법어(傳燈法語)이다. 참선 수행을 근본으로 간경과 염불, 주력 수행을 포용하여 통불교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조계종의 중지종풍을 구현하는 수행기관으로는 종합수도원인 해인사 해인총림, 송광사 조계총림, 통도사 영축총림, 수덕사 덕숭총림, 동화사 팔공총림, 범어사 금정총림, 쌍계사 쌍계총림의 7대 총림(叢林)이 있다. 조계종의 대표적인 수행기관인 선원(禪院)은 총림 봉암사 특별선원, 동화사 금당선원, 상원사 청량선원, 백담사 무금선원 등 전국 100여 곳에 달하며, 그곳에서 매년 2,000여 스님들이 동·하안거 결제 시에 산문 출입을 금한 채 수행 정진에 몰두하고 있다.

조계종의 종단 운영은 불법(佛法)과 율장정신을 바탕으로 제정된 「종헌」에 근간을 두고 있다.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의 종정(宗正)과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총무원장은 종헌을 바탕으로 종단 운영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종단 운영 실무는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3원 체제 아래 꾸려진다. 중앙종무기관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와 사법기관인 호계원이 각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 25교구본사를 중심으로 3,000여 곳의 말사와 포교당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소속된 불교 종단은 총 30개다. 그중에서도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한 최대종단이다. 조계종의 전체 승려 수는 13,000명이고, 이중 약 2,000여 명의 스님들이 연중 두 차례에 걸쳐 안거 수행에 들어간다. 이를 하안거, 동안거라 부른다.

한국의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조계종의 위치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국가로부터 역사성을 인정받은 전통사찰은 980여 곳이다. 이중 80% 이상이 조계종 사찰이다. 또한 국가가 지정한 국보와 보물의 60% 이상이 불교문화재로 분류되고 있다.

전문 수행도량인 선원은 조계종에만 약 100여 곳에 달하며, 전국 14개 승가대학에서 1,000여 명의 출가자들이 불교의 교학을 공부하고 있다. 교육 부문을 살펴보면, 조계종은 현재 1개의 초등학교와 11개의 중학교, 12개의 고등학교, 2개의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이 운영하고 있는 동국대학교는 1906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18,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중앙종무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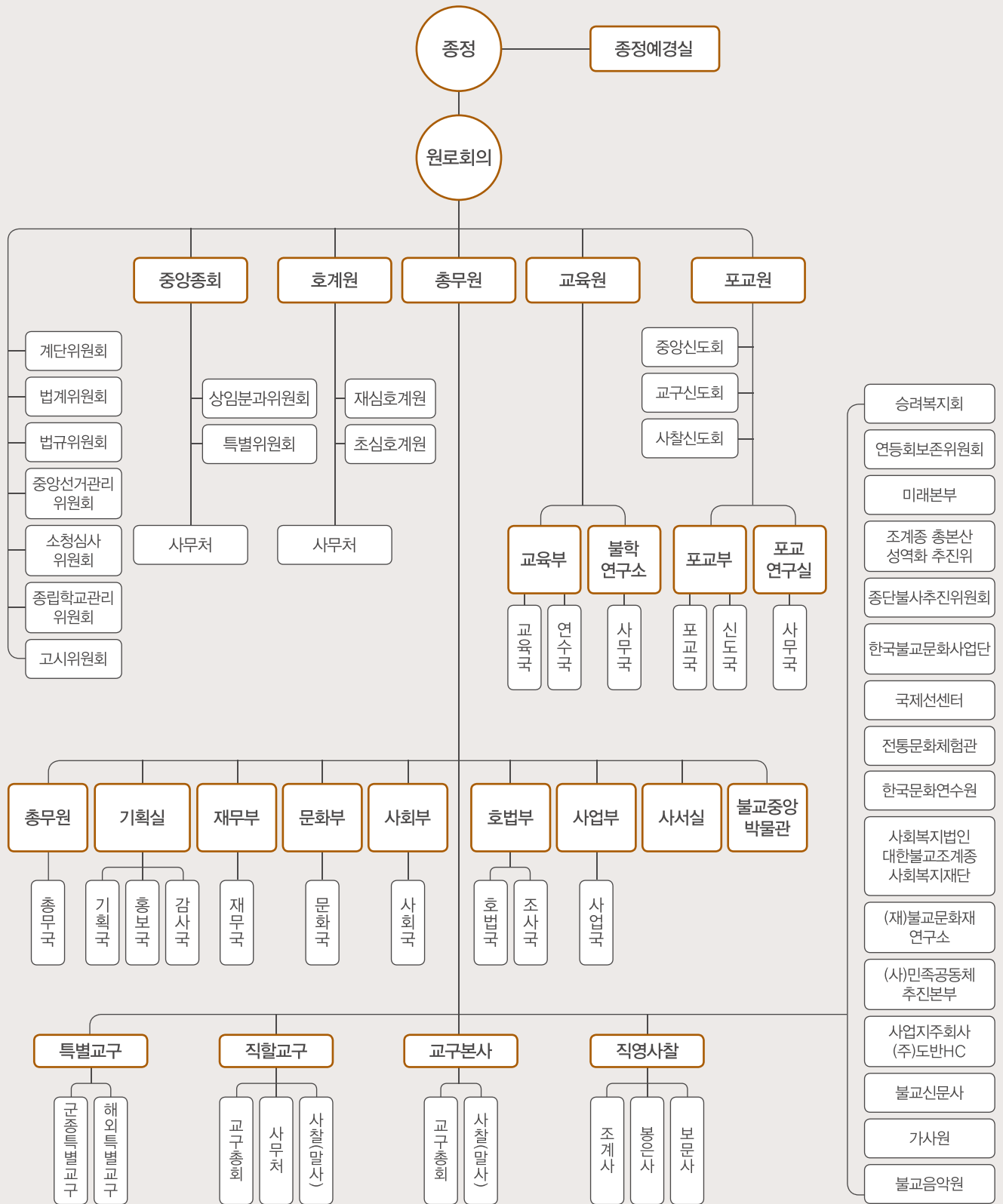
중앙종무기관

중정예경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호계원, 중앙종회, 총무부, 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사업부, 사서실, 불교중앙박물관, 교육부, 불학연구소, 포교부, 포교연구실

부설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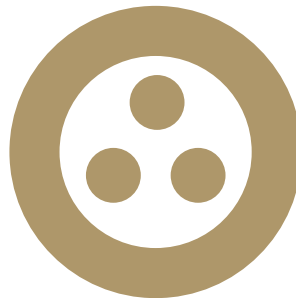
승려복지회, 연등회 보존위원회, 미래본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 중단불사 추진위원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문화연수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사)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 불교신문사, 가사원, 불교음악원,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삼보륜

삼보륜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이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심볼이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앙과 선교양종이라는 조계종의 정체성을 담았으며, ‘사부대중의 화합’과 더불어 ‘신앙과 포교를 통한 불국정토의 구현’을 의미하고 있다.



삼보륜 빛깔

삼보륜의 빛깔은 금색, 가사색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흑백으로 표현될 경우에는 검정을 사용한다.



가사 별색 PANTONE 1675U
4도 M69, Y100, K30



금색 별색 PANTONE 872U
4도 C31, M35, Y62, K4



흑백 검정(1도)





출가교육 · 수행

스님은 출가 사문을 일컫는 명칭이다. 출가 사문은 바른 지혜와 큰 자비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출가하여, 승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기 위한 길을 가는 수행자를 일컫는다. 승가공동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다.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수행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승가공동체이다. 이후 승가공동체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1,700년 전 한반도에 전해져 현재까지 그 전통과 법맥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출가와 수계

조계종으로 출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인연 있는 사찰에서 은사(스승)를 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삭발을 하게 된다. 이 순간부터는 행자의 신분이다. 행자는 일정기간 동안 사찰 내의 생활양식을 익히는 기간이다. 행자 교육이 끝나면 수계 절차를 거쳐 사미·사미니(예비승려)의 신분을 받게 된다. 사미·사미니는 다시 4년 동안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이 끝나면 소정의 시험과 비구·비구니계를 받는 수계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식으로 스님이 되는 것이다.

스님이 되면 일상적인 수행에 매진하는 것이 기본이다.

가람을 수호하는 한편, 예불과 참선, 기도, 간경, 주력 등의 수행을 주로 하게 된다. 때로는 사찰 중무를 맡거나 재가신도의 교육을 맡는 등의 전법과 교화활동도 스님들의 주요한 활동이 된다.

스님의 일과

스님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된다. 청아하고 낭랑한 목탁소리와 사물(四物, 법고, 운판, 목어, 범종)이 세상의 못생명을 깨우며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사물 연주가 끝나면 사부대중(출가한 비구, 비구니, 재가신도인 우바새, 우바이)은 큰 법당에 모여 부처님께 예불을 올린다. 예불 후에는 참선과 간경의 시간이다. 아침 6시까지 이어지는 정진이 끝나면 공양이 시작된다. 도량을 청소하는 울력은 그 다음이다.

아침을 여는 모든 과정들이 끝나면 선원에서는 참선을, 사찰승가대학에서는 간경 공부를 하며, 10시 30분에 다시 큰 법당에 모여 사시예불을 올리게 된다. 오후 일과는 오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11시 점심 공양, 그리고 다시 참선수행 혹은 간경 수행이다. 저녁 공양시간은 5시다. 하루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저녁 예불이 이어지고 다시 수행을 이어가다 밤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든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치열한 수행이 반복되는 것이 사찰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일과다.

종단 승려교육

스님들을 위한 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 및 특수교육, 그리고 재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단계별로 승가고시도 봐야 한다. 일단 조계종에 몸담고 있는 스님이라면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기본교육까지 이수한 스님들은 구족계(비구계)를 받게 된다. 정식으로 스님이 되어 10년간 수행을 이어간 후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비로소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더불어 각종 종무직의 소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스님들의 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경·율·논과 선(禪)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도 있고, 포교를 비롯한 불교문화 및 예술 등의 전문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교육도 마련돼 있다.

교육단계	교육연한	수계	입교자격	교육기관
행자교육과정	6개월 이상	사미 사미니	사찰에서 수행한 행자	행자교육원
기본교육과정	4년	비구 비구니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사찰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 불교대학 기본선원
전문교육과정	5년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승가대학원



선원에서의 수행 과정

선원(禪院)은 조계종의 최상승 수행법인 간화선 수행을 하기 위한 종단 수행기관이다. 스님들은 이곳에서 오로지 선 수행에만 집중적으로 매진한다. 종립 특별선원인 봉암사 태고선원을 비롯해 총 100여 곳의 선원이 개원되어 있다.

선원에서는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의 기간 동안 산문 출입을 금하고 간화선 수행에만 정진하는데, 이를 안거라 부른다. 그래서 여름 3개월 안거를 하안거, 겨울 3개월 수행을 동안거라 부른다. 안거는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매년 2,000여 명의 수행자들이 1년에 두 차례씩 안거에 들어간다. 안거가 끝난 후 스님들은 만행(萬行)을 떠난다. 요즘은 만행기간에도 산철결제라 하여 선방을 열어두는 선원들도 있다.

선원에서는 새벽 2시(혹은 3시) 죽비소리에 맞춰 기상한 후 새벽예불을 드리며 삼배 혹은 108배를 올린다. 공양 시간과 율력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선 수행에만 집중하는 게 선원의 일과다. 수행시간은 각 선원의 청규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밤 9시나 11시까지 진행된다.

수행은 하루 8~10시간 동안 하는 일반정진, 12~14시간의 가행정진(加行精進), 하루 18시간 이상의 용맹정진(勇猛精進)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일부 선원에서는 한 달간 용맹정진을 실천에 옮기기도 한다. 또 3개월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눕지 않고 좌선에만 집중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 독방의 문을 봉하고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출입을 금한 채 홀로 용맹정진하는 무문관(無門關) 수행 같은 수행법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간화선

조계종이라는 종단의 명칭에서 조계는 본디 육조 혜능스님이 주석하던 ‘조계산’의 명칭에서 나온것이다. 혜능스님은 조사선 수행을 몸으로 구현한 선승이었다. 그로 인해서 조사선은 동아시아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만큼 한국은 조사선의 정통성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한국에 조사선이 전해진 시기는 9세기경이다. 조계종의 종조 도의 국사는 당시 혜능스님의 법맥을 이은 중국의 서당 지장(西堂智藏) 선사로부터 깨달음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불교에 조사선을 전했다. 신라(BC 57~AD 935)말 선문을 열었던 구산선문(九山禪門)도 모두 조사선을 계승하고 있다.

조사선이란 역대 조사들이 본래성불(本來成佛)의 자리를 깨우치고 이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사선의 본래성불은 나 스스로가 본래 부처였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문자, 언어, 이성적 사유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모두가 부처인데, 단지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서 그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번뇌, 망상은 분별심이다. 분별심이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조사선의 큰 갈래 중 하나인 간화선은 화두를 통해 분별심을 비우고 본래성불 자리를 구현한다. 화두로 번뇌와 망상을 비워내고 마음의 본모습을 되찾게 되면 부처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화두는 부처로서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즉, 조사선의 수행 전통 위에서 화두를 들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선 수행이 간화선이다.

화두는 참말, 진짜 말이라는 의미다. 참말이기 때문에 뛰어난 근기를 지닌 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화두에 대해 간절히 의심하고 참구하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화두의 구조는 말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작용이 개입되면 이는 망상이라고 본다. ‘간화선’에서 ‘간화看話’라는 말은 이처럼 화두를 간절하게 의심해 들어가는 행위를 일컫는다.

고려시대(918~1392)에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수선사(지금의 송광사)에서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창하며 선 수행법을 크게 일으켰고, 간화선의 수행체계를 전해 한국의 선 수행을 진일보시켰다. 이후 태고 보우 스님 대에 이르러 간화선 수행은 한국 선의 주요한 수행법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됐다.

조선시대(1392~1910)의 불교는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 탄압을 받았지만, 청허 휴정(淸虛 休靜), 부휴 선수(浮休 善修) 스님 등 선사들이 있었기에 간화선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다. 조선시대 선맥은 근대기에 접어들며 경허 성우, 용성 진중 스님에게로 이어져 새롭게 선풍이 진작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조사선 가풍의 간화선 수행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유일한 나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찰

한국의 사찰은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도성(都城)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정릉사지, 백제의 미륵사지, 신라의 황룡사지 등과 같이 국가 차원의 대찰이 건립되었으며, 나라의 흥망성쇠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 이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사찰은 산이 많아 그 지형에 따라 자연스레 산중에 터를 잡은 산지 가람의 형태가 자리 잡게 되었다. 무수한 전란과 조선시대 불교를 배척했던 사유로 대부분의 평지 가람이 사라지게 되어 오늘날 산지가람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의 산사는 화려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사찰이 산과 어울리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한국사찰의 구조

한국사찰은 대부분 주불(主佛)이 모셔진 불전과 그 앞에 세워진 탑을 중심으로 여러 건축물을 지형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 사찰입구에서 법당까지는 많은 문들이 있으며, 각 불교의 핵심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사찰로 들어설 때 먼저 만나게 되는 문은 일주문(一柱門)이다.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데, 번뇌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토에 발을 디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보통 금강문, 천왕문, 불이문, 해탈문 등을 지나게 된다. 금강문은 금강역사가 사찰을 수호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천왕문(天王門)은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을 모신 문이다. 불이문(不二門)은 선악, 생사, 세속과 정토 등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불이의 진리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해탈문은 이 문을 지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해탈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

각 문들을 지나면 주불전의 앞마당과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탑과 만나게 된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나 경전을 안에 모시고 있으므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한다. 탑은 사찰의 중심에 위치하며

한국에서는 목탑에서부터 시작하여 돌로 만들어진 석탑으로 발전하였다.

석탑은 다른 불교국가들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발전되어 온

한국불교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탑이 있는 마당에는 각 방향에 여러 불전들이 배치되는데 각 불전이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이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으로서 경내의 중심이 되는 전각이며, 대적광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다.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일컫는다.



조계종 주요 사찰

전국의 3,000여 곳의 조계종 사찰은 25개 교구에 각각 소속되어 있으며,
각 교구 이외에 군사찰과 해외사찰을 담당하는 2개의 특별교구가 있다.
각 교구를 총괄하는 본사(本寺)가 있고 그 산하에 말사와 포교소가 소속되어 있다.

한국불교의 역사는 1,700년에 달하는 만큼, 수많은 창건 설화와 신비로운 내력이 있는 사찰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5대 적멸보궁과 3대 관음기도도량이다.

5대 적멸보궁

5대 적멸보궁은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영축산 통도사에 위치한다. 적멸보궁이라 이름한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심으로써 부처님이 항상 그곳에서 적멸의 낙을 누리고 있음을 상징한다. 진신사리는 곧 법신불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진신(몸)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여긴다. 보통 적멸보궁의 경우 예불의 대상으로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는다. 예배의 대상이 될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으므로 불단만 놓는 게 일반적이다.

- | | |
|----------------|--|
| 1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63 |
| 2 사자산 법흥사 적멸보궁 |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법흥로 1352
☎ www.bubheungsa.kr |
| 3 태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14번지 |
| 4 영취산 통도사 적멸보궁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www.tongdosa.or.kr |
| 5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 2리 690
☎ www.bongjeongam.or.kr |

3대 관음기도 도량

3대 관음기도 도량은 사바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대자대비로 구원하는 관세음보살의 성지다.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인도에서는 남쪽 해안의 보타낙가산(補陀洛迦山)이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이며, 중국은 경치가 좋은 주산열도의 보타도(補陀島) 조음동(潮音洞)이 관음 성지이다. 바다가 없는 티베트에서는 키추(Kichu)강을 바다로 가정하고 강 유역에 있는 라사(Lhasa, 拉薩)를 보타낙가로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관음도량들도 모두 바다에 인접해 있다. 동해의 낙산사 홍련암, 서해의 낙가산 보문사, 남해의 금산 보리암이 3대 관음성지다.

- 1 낙산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www.naksansa.or.kr

- 2 보문사** 인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www.bomunsa.me

- 3 보리암**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상주리 2065)
www.boriam.or.kr



삼보사찰

한국불교의 또 다른 성지로는 삼보사찰(三寶寺刹)이 있다.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광사가 신앙의 근본이 되는 삼보사찰이다. 불보(佛寶)사찰 통도사는 신라시대 자장 스님에 의하여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적멸보궁이다. 부처님의 진신(몸)을 모신 사찰이라는 의미에서 불보사찰이라고 부른다. 법보(法寶)사찰 해인사는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새긴 팔만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한 전각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장경판전이 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이라고 불린다. 승보(僧寶)사찰 송광사는 고려 이후 16명의 국사(國師)를 배출한 대표적인 승가사찰이다. 때문에 한국불교 최고의 승보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사찰 중에는 ‘총림(叢林)’이라 불리는 곳들이 있다. 총림은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을 모두 갖춘 사찰을 말한다. 현재 한국에는 총 일곱 군데 사찰이 총림으로 지정돼 있다. 그 일곱 군데 사찰은 해인사 해인총림, 송광사 조계총림, 통도사 영축총림, 수덕사 덕숭총림, 동화사 팔공총림, 쌍계사 쌍계총림, 범어사 금정총림 등이다.

조계종 교구본사



- ① 직할교구
- ② 제2교구 용주사
- ③ 제3교구 신흥사
- ④ 제4교구 월정사
- ⑤ 제5교구 법주사
- ⑥ 제6교구 마곡사
- ⑦ 제7교구 수덕사
- ⑧ 제8교구 직지사
- ⑨ 제9교구 동화사
- ⑩ 제10교구 은해사
- ⑪ 제11교구 불국사
- ⑫ 제12교구 해인사
- ⑬ 제13교구 쌍계사
- ⑭ 제14교구 범어사
- ⑮ 제15교구 통도사
- ⑯ 제16교구 고운사
- ⑰ 제17교구 금산사
- ⑱ 제18교구 백양사
- ⑲ 제19교구 화엄사
- ⑳ 제20교구 선암사
- ㉑ 제21교구 송광사
- ㉒ 제22교구 대흥사
- ㉓ 제23교구 관음사
- ㉔ 제24교구 선운사
- ㉕ 제25교구 봉선사



1

총본산 조계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총본산으로 대승 보살정신이 살아 숨쉬는 사찰이다. 일제치하에 조선불교의 자주화와 민족자존 회복을 염원하는 스님들에 의해 창건되었다. 국제 문화의 도시인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 위치한 전통사찰이다. 1938년 중창된 대웅전은 전국에서 가장 큰 목조건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24시간 경내 개방을 통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방문할 수 있으며, 불교 관련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창건 1910년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 www.jogyesa.kr



2

제2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신라 문성왕 16년에 창건되어 이름 높은 도량이었으나 병자호란때 소실되어 폐사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문예부흥의 주역인 정조대왕이 비명에 숨진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절을 재건하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 꿈을 꾸 후 용주사로 명명하게 되었다. 효행교육원, 효 박물관 등을 운영하여 불교의 효 사상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국보 제 120호로 지정된 고려법종이 800년을 이어오고 있다.

창건 854년(신라 문성왕 16년) 📍 경기 화성시 용주로 136 🌐 www.yongjusa.or.kr



3

제3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 설악산 자락의 수행처이다. 설악산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하여 성도하신 설산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신흥사가 있는 곳은 삼재가 범하지 못하도록 신인(神人)이 점지한 터라고 전해지며, 경내에는 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는 동양 최대의 청동 좌불상이 있다. 산사음악회를 통하여 자연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지고 있는 사찰이다.

창건 652년(신라 진덕여왕 6년) 📍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1137 🌐 www.sinhungsa.kr



4

제4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5만의 보살이 상주하고 있다는 불교의 성지 오대산에 자리 잡은 오대신앙의 본산이다. 개산조 자장 율사에서부터 근대의 한암·탄허 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식들의 선풍이 살아있는 곳이다. 고려석조 미술의 백미로 꼽히는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과 이 탑을 향한 석조보살좌상(보물 139호)이 천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사시사철 푸른 그림자를 드리우는 전나무 숲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창건 643년(신라 선덕여왕 12년)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www.woljungsang.org



5

제5교구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세속을 떠난 곳이라는 속리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부처님의 진리가 머문다는 의미를 사찰명에 담고 있는 수행처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목탑인 팔상전(국보 55호)을 비롯해 여러 국보급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한국 미륵신앙의 대표적인 사찰로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청동미륵대불을 조성해 놓았다.



창건 553년(신라 진흥왕 14년)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 www.beobjusa.org



6

제6교구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자장율사가 창건한 충남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보조국사가 중창한 뒤 불법을 전하는 큰 도량으로 법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도 세조가 이 절에 들려 '영산전(靈山殿)'이라고 사액(賜額)을 한 일이 있다. 물의 흐름과 산의 형세가 태극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곳은 택리지, 정감록 등 옛 책자에서 전란을 피할 수 있는 명당으로 꿈을 만큼 산세가 아름답다.



창건 640년(신라 선덕여왕 9년)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 www.magoksa.or.kr



7

제7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배움과 덕성을 닦는 도량’, 즉 선법(禪法)을 사찰의 정체성으로 삼고 사격(寺格)을 드높여왔으며, 경허 선사, 만공 선사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선풍을 진작해 온 사찰이다. 1984년 덕숭총림으로 승격되었다. 수덕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인 대웅전(국보 49호, 고려 충렬왕 34년 [1308년])이 있으며, 백제로부터 시작된 지역 불교의 원류부터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본·말사의 불교문화재 600여 점을 소장·전시하고 있는 근역성보박물관이 있다.

창건 384년(백제 침류왕 원년)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 www.sudeoksa.com



8

제8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

직지인심 건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이라는 선종(禪宗)의 가르침에서 사찰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여러 국난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점차 쇠락해 갔으나, 1960년대 녹원 화상(綠園和尙)에 의해 60동이 넘는 불사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중창됐다. 종단 최대 승가교육시설을 보유하여 행자교육을 비롯한 승가교육의 중심도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창건 418년(신라 눌지왕 2년)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www.jikji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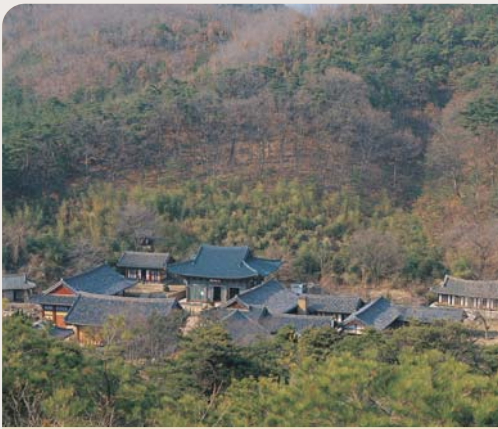
9

제9교구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절을 중창할 때 한 겨울에도 오동나무 꽃이 상서롭게 피어나 오동나무 꽃이 피는 절이란 의미에서 개칭했다. 통일을 염원하는 약사여래불의 조성 and 사찰의 법통계승과 뜻을 기리는 개산대제, 팔공산에서 전쟁으로 산화한 호국영령의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 팔공총림

창건 493년(신라 소지왕 15년)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1길 1 🌐 www.donghwasa.net



10

제10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본존불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교구본사로 유명하다. 불, 보살, 나한 등이 중중무진으로 늘어선 것 같은 웅장한 모습이 마치 은빛 바다가 춤추는 극락정토 같다하여 은해사라고 한다. 종립 승가대학원이 있다.

창건 809년(신라 헌덕왕 원년)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 www.eunhae-sa.org



11

제11교구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는 사찰로 석가탑과 다보탑을 비롯한 수많은 국보문화재와 보물문화재가 있다. 때문에 매년 수백만의 내·외국인 방문객들이 불국사를 방문한다. 또한 강원과 선원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도량이다.



창건 528년(신라 법흥왕 15년) 📍 경북 경주시 불국로 385 🌐 www.bulguksa.or.kr



12

제12교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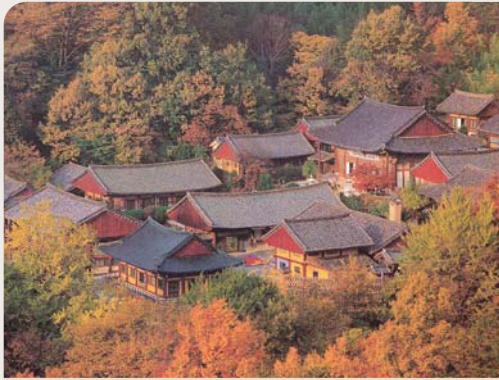
신라시대 화엄십찰이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과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새긴 팔만대장경이 모여져 있는 법보종찰이다. 용성·고암·자운·성철·일타·해암 스님 등 시대의 고승대덕들이 주석하면서 선풍을 진작시켜 온 한국불교의 종가사찰이다.



법보종찰



창건 802년(신라 애장왕 3년)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 www.haeinsa.or.kr



13

제13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진감 국사가 차 종자를 들여와 지리산 일대에 심고 중창한 가람이다. 진감국사가 처음으로 범패를 펼쳐 보인 곳이기도 하다. 최치원 선생이 직접 글을 짓고 쓴 진감선사비(국보 제47호)가 대웅전 옆에 있다. 차의 고향으로서 십리의 벚꽃 길과 불일폭포가 유명하다. 쌍계사 인근의 칠불사 아자방에서는 정진하는 스님들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 쌍계총림

창건 723년(신라 성덕왕 23년)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 www.ssanggesa.net



14

제14교구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로서 영남 불교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경내에 보물 제434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하여 3층석탑(보물 250호), 당간지주(幢竿支柱), 일주문(一柱門), 석등(石燈) 등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다. 의상 스님으로부터 근대에 동산 스님까지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사찰이다. 범어사를 둘러싼 산내에는 금어선원을 비롯한 다수의 선원들이 운영되고 있다.

☎ 금정총림

창건 678년(신라文武王 18년) 📍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 www.beomeo.kr



15

제15교구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서 당나라에서 가져 온 진신사리와 금란가사가 모셔져 있는 불보종찰이다. 통도사라는 이름은 이 절이 위치한 산의 모습이 부처가 설법하던 인도 영축산의 모습과 통하기 때문이고(此山之形通於印度靈鷲山形),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 계단(戒壇)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도라 했으며(爲僧者通而度之), 모든 진리를 회통(會通)하여 일체중생을 제도(濟道)한다는 의미에서 통도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경봉 스님께서 주석하시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산내 2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있다. 성보박물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기도 하다.

☎ 영축총림

불보사찰

유네스코

창건 643년(신라 선덕여왕 15년)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www.tongdosa.or.kr



16

제16교구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

화엄종의 시조이신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500m에 이르는 송림이 우거져 있는 사찰로 고운(孤雲) 최치원이 머무른 일화를 계기로 고운사(高雲寺)에서 고운사(孤雲寺)로 사명을 붙였다.

창건 681년(신라 신문왕 원년)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 www.gounsa.net



17

제17교구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후백제의 시조인 견훤이 이 절에 윤회됐다가 탈출해 고려 왕건에게 항복한 역사적 사건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찰이다. 이후 왕건이 미륵신앙을 민중에게 뿌리 내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륵제일의 성지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목조건축물인 국보 제62호 미륵전이 있다. 봄철 산 입구부터 절까지 이르는 벚꽃이 장관을 이루며 모악축제, 해넘이축제, 개산대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건 599년(백제 범왕 1년) 📍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 www.geumsansa.org



18

제18교구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백제의 고찰로서 후학양성으로 유명한 만암 스님이 출가하고 입적한 곳이다. 서용 방장스님은 이곳을 중심으로 참사람 사상을 펼치기도 했다. 지금도 그 실천의 일환으로 무차선법회, 참사람수행원 운영을 하고 있다.

창건 632년(백제 무왕 32년)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www.baekyangsa.com



19

제19교구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한국 화엄사상의 중심도량으로, 국가와 왕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승고덕들이 주석하면서 한국 화엄의 조류를 이끌었던 화엄교학의 중심사찰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면서도 그 조각수법이 뛰어난 국보 12석등, 국보 35호 사사자삼층석탑(四獅子三層石塔) 등이 통일신라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조선시대 중기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국보 제67호 각황전과 길이 11.95m, 폭 7.76m의 거대한 불화인 국보 301호 화엄사영산회괘불탱(華嚴寺靈山會掛佛幀) 등은 조선시대 화엄사의 위용을 잘 보여준다.

창건 544년(백제 성왕 22년)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 www.hwaeomsa.or.kr



20

제20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절 서쪽에 신선이 바둑을 두던 평평한 바위가 있어 선암사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 사찰은 봄이면 피어나는 선암매(천염기념물 제488호)와 절 입구 진입로의 승선교(보물 제400호) 등 아름다운 문화재로도 유명하다. 선암사는 현재 사적 제507호로 지정되어있으며,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이 명승 제65호로 지정되어있다.



창건 527년(백제성왕 5년)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www.seonamsa.net



21

제21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지눌스님 등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로서 한국불교의 승맥을 이어 온 사찰이다. 국보 56호인 송광사 국사전은 현재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조선 전기의 건축물이다. 이는 승보사찰로서의 위치를 잘 말해주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근현대가 고승으로 평가받는 효봉 스님, 구산 스님 등이 주석했던 것으로 유명하며, 법정 스님이 청빈한 삶을 의탁하고자 했던 불일암을 암자로 두고 있다.



승보사찰

창건 신라말 혜린(慧璘)선사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www.songgwangsa.org



22

제22교구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4km에 달하는 울창한 숲길의 절경으로 유명한 두륜산 자락의 수행처이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켰던 서산 대사의 유품이 소장되어 있는 표충사 전각이 있으며, 13대 종사 및 13대 강사(13大 講師)를 배출한 수도도량이다. 초의 선사에 의해 발전된 차 문화의 전통이 전해지며, 주말수련회를 통한 일반인들의 수행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창건 426년(백제 구이신왕) 📍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 www.daeheungsa.co.kr



23

제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한라산 종턱에 자리 잡은 제주 불교의 산실이자 중심 역할을 하는 총본산이다. 1900년대 초, 암봉 려관 스님(비구니)이 현재 위치에 중창하면서 제주 불교 부흥의 근본도량이 되었다. 민족통일과 인류 평화를 위한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 성역화 사업이 한창이며 제주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건 1905년 📍 제주 제주시 산록북로 660 🌐 www.jejugwanumsa.or.kr



24

제24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천연기념물 제184호인 동백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가 산재된 수행도량이다. 임진왜란 직후 지은 대규모의 목조건물인 대웅보전과 흙으로 빚은 대형 삼불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근대기 석전 박한영 대강백이 주석했던 사찰로도 유명하다. 도솔암으로 난 오솔길에는 동학운동의 비원이 서린 13m에 달하는 마애불이 있다.

창건 577년(백제 위덕왕 24년)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www.seonunsa.org

25

제25교구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휴양림으로 탈바꿈한 광릉과 접해있는 수도도량이다. 조선시대 이후 교종 본찰로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근대기 대강백인 운허·월운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역경 사업과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군포교에 남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현존 최고의 범종인 봉선사대종과 왕실발원 괘불이 유명하다.



창건 1469년(조선 예종 1년)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 www.bongsunsa.net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종특별교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선도할 군불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라는 구호 아래 군포교, 교육, 문화, 복지, 보육, 장학 사업 및 신도조직과 관리, 군 사찰의 건립 및 유지 운영, 군승자원의 육성 및 관리, 군 포교 후원회 조직 및 관리 등 군 포교의 전문화, 체계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설립년도 1968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3동3가 1 🌐 www.gunindra.com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

2011년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공포하고, 한국 최초로 해외(뉴욕 불광선원)에 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가 설립되었다. 이후 2021년 6월 서울 전법회관에 해외특별교구 사무국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해외특별교구는 해외사찰과 관련한 행정업무지원, 해외 포교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으로는 해외특별교구장을 중심으로 미국에는 미동부해외특별지회와 미중서부특별지회가 있고, 오세아니아 지역을 담당하는 호주 정법사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설립년도 2011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7층



불교문화유산





한국불교는 삼국시대(BC37~AD660)에 불교가 전래되어 통일신라(660~935), 고려시대(918~1392), 조선시대(1392~1910)를 거치며 당시 민중들의 지극한 신심과 예술정신은 찬란한 성보(聖寶)를 조성했고, 이는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됐다. 한국의 불교문화는 대승불교 문화권인 중국, 일본과 서로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지형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배치, 자연스러운 미감 등은 한국불교 건축과 조형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미술의 역사

불교미술은 한국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불교 자체는 외래종교지만, 한국불교가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조형적 성격 역시 독특하게 발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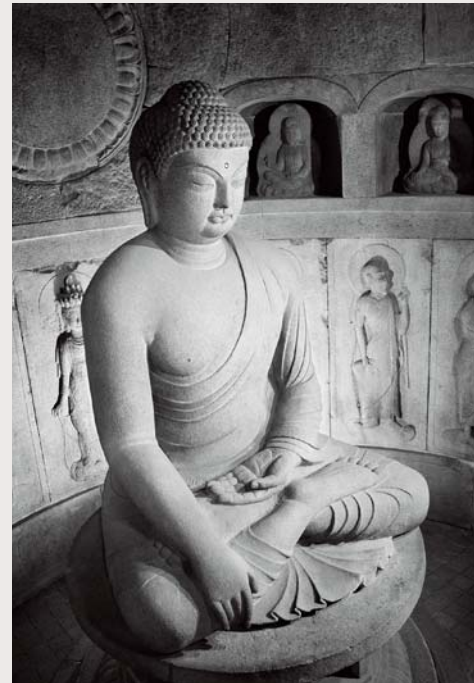
삼국시대 당시 세 나라가 나뉘대로 성격을 달리한 조형 활동은 매우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줬다. 삼국이 통일된 이후인 통일신라시대의 미술은 한국불교미술의 전성기였다고 평가된다.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이후에도 불교는 국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고,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불교미술은 더욱 새롭고 다양하게 전개됐다. 다만 고려시대의 조형물에서는 선종(禪宗)의 대두에 따라 이전 시대와는 다른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가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숭유배불 정책에 따라 불교가 위축되자 미술활동도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한다. 전국 각지의 불교건축을 비롯한 모든 조형 활동은 점차 퇴조하게 되었으며, 임진왜란(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친 일본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과 병자호란(1636년 12월~1637년 1월에 청나라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 등의 전화(戰禍)로 말미암아 수천 년의 전통을 이어 온 민족문화재가 수난을 당해 황폐화되는 시련기가 찾아온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불교의 문화는 면면히 이어지며 꽃을 피워 나갔다. 전란 중에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불교였으며, 전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불교의 품속에서 가능했다. 불교가 억압받던 시대에도 대규모의 재건불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조성된 조선의 불교문화는 현재까지 이어지며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

성보와 문화재

조계종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고려 팔만대장경), 산사 7개 사찰(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등과 함께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들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각 문화재들은 민족문화유산이기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부처님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불자들이 일상에서 예경하는 성보(聖寶)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성보문화재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종교적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다. 조계종은 주요 성보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각 사찰에서도 성보박물관을 지어 운영 중이다. 오늘날 한국의 국보·보물급 문화재의 절반이 불교문화재다. 조계종의 사찰에서 예경의 대상으로 보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1. 한국의 불교 세계유산

불국사와 석굴암

불국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이다. 불국사는 석굴암과 같은 시기인 751년에 김대성의 발원으로 창건되어 774년에 완공되었다. 재상 김대성이 전세(前世)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조성하였고,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불국사는 신라의 사람들이 그렸던 불국토, 즉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지상에 옮겨 놓은 것으로,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의 법화세계와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화엄경에 근거한 연화장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불국사는 1995년 12월 석굴암과 더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록됐다.

경주 토함산(吐含山)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석굴암은 화강암 판석을 쌓아 만든 원형의 인공석굴로, 건축적 요소와 종교성, 예술성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임을 인정받아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석굴암과 관련된 가장 이른 문헌인 일연(一然, 1206~1289년)스님의 『삼국유사(三國遺事)』권 5, 「大城孝二世父母(대성효이세부모)」기록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10년(751년),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하여 혜공왕 10년(774년)에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굴암의 구조는 직사각형의 전실(前室)과 원형의 주실(主室), 복도 역할을 하는 통로인 비도(扉道)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공간은 석굴 입구에서부터 본존불상이 자리하고 있는 주실까지 총 40구의 부조상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석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전실 좌·우 벽면에는 각각 4구의 팔부신중상(八部神衆像)이,

주실로 이어지는 입구 좌·우 벽면에는 2구의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비도의 좌·우 벽면에는 각각 2구의 사천왕상(四天王像)과 2기의 석주(石柱)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지나 주실로 들어가면 중앙에 원형의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를 틀고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는 본존불상이 나타난다. 본존불상 주위로는 십일면관음보살상(十一面觀音菩薩像), 7구의 범천과 제석천상, 10구의 십대제자상(十大弟子像) 등 여러 부조상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상되어 있다. 석굴암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해체 복원과정에서 잘못된 보수공사로 상당부분 파손되고 훼손되는 등 수난의 시간을 겪었으나, 지금까지도 8세기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불교문화의 탁월한 예술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경주역사유적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하는 종합역사지구이다. 다양한 유산을 통해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불교 및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수의 기념물과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적의 성격에 따라 5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유적지구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와 황성 옛터와 계림(鷄林), 안압지, 첨성대를 포함하는 “월성지구”, 세 그룹의 왕실 무덤들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와 분황사 석탑을 포함하는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 시설인 명활산성을 포함하는 “산성지구”이다.

이처럼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천 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신라의 수도로서 불교 및 생활 문화 등 역사와 문화의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해 온 역사문화지구이자, 신라문화를 대변하는 유산이다.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이자 삼보사찰 가운데 법보사찰(法寶寺刹)이다. 해인사 내 장경판전은 13세기에 조성된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 81,258장을 보존하고 있는 보고(寶庫)이다. 장경판전은 15세기 건축물로서 경판의 보관을 위하여 건립된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장경판전은 4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 15칸, 측면 2칸의 수다라장전(修多羅藏殿)과 법보전, 정면 2칸, 측면 1칸의 동사간판전(東史刊板殿)과 서사간판전(西史刊板殿)이 장방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건물의 창에는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은 나무 창문을 달았고, 창 크기를 각 칸마다 서로 다르게 하여 통풍과 환기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는데, 특히 앞벽보다 뒷벽 아래의 창을 더 작게 만들어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닥에는 배수가 잘되는 토질 위에 숯과 소금, 석회를 뿌렸고, 벽은 자연 재료인 흙을 사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장경판전은 목판으로 만들어진 경판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주변의 자연 환경 요소를 최대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배치와 구조, 창호 방향, 경판의 배열 등의 건축 양식적 측면에서 최적의 항온과 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건축물이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하 '산사')은 한국의 사찰 가운데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7개 사찰로 이루어진 유산이다. 이들 사찰은 7~9세기 창건 당시 다양한 종파를 반영하고, 오늘날까지 불교 출가자와 신자의 수행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종합승원임을 인정받아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7개 산사는 창건 이후 불교 산지 승원으로 오랜 세월을 걸친 유구한 역사와 지속성에 기반하는 많은 건축물과 유물 및 문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산사는 공통적으로 사찰과 산을 경계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연결하여 주변 자연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마당을 포함하고 마당의 4면에는 누각과 강당 및 요사채가 배치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간배치는 승가 공동체의 자급자족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 경영과 관리, 승가교육, 선 수행, 교리학습의 전통도 함께 반영되어 있어 중요하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한국불교의 시대적 변모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자, 불교 수행의 유구하고 지속적인 전통이 현재까지 단절 없이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 승원이다.

1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www.tongdosa.or.kr
2	부석사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www.pusoksa.org
3	봉정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www.bongjeongsa.org
4	법주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www.beobjusa.org
5	마곡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www.magoksa.or.kr
6	선암사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www.seonamsa.net
7	대흥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www.daeheungsa.co.kr



2. 한국의 불교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해인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제작된 고려대장경판(총 81,258장)과 제경판(총 5,987장)을 소장하고 있다. 고려대장경판은 1232년(고려 고종 19) 몽고의 침입으로 초조(初雕) 대장경이 불타 없어지자, 1232년부터 1251년까지 총 81,258판의 목판에 대장경을 새겨 제작한 것으로 현전하는 유일하고 완벽한 형태의 판본자료이다. 제경판은 해인사에서 직접 후원하여 제작한 경판으로 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두 경판은 당대 최고의 인쇄 및 간행 기술의 사례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점을 인정받아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고려대장경판은 인도와 중앙아시아어로 된 경전과 계율, 논서, 교리 등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불교 경전의 내용을 집대성한 당대 최고의 경전으로, 한역한 내용과 더불어 중국어가 원문인 일부 문헌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고려대장경 판각 당시 수기법사(守其法師) 등이 고려의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과 「북송칙판대장경(北宋勅板大藏經)」, 「거란본대장경본(契丹本大藏經)」의 내용과 비교하여 오탈자를 바로잡는 등 경판의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대장경판은 목재를 바닷물에 3년 동안 담갔다가 소금물에 써서 사용하고, 경판 표면에 여러 번의 옷칠을 하는 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대책이 이루어졌던 사실도 함께 확인된다. 이처럼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방대한 분량과 내용의 정확성 면에서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 수준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인 문화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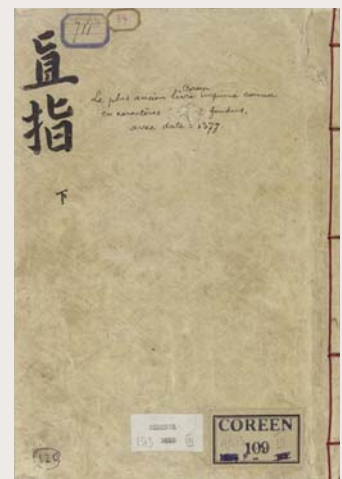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은 고려 우왕 3년(1377년)에 인쇄돼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상권은 발견되지 않았고, 하권 1책(총 38장)만 현존한다.

『직지』의 정식 서명은 본래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백운경한(白雲景閑, 1299~1374년) 스님이 불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역대 여러 부처와 조사(祖師)들의 계(偈), 송(頌), 가(歌), 명(銘), 서(書), 찬(讚), 법어(法語), 문답(問答)에서 선(禪)의 요체(要諦)를 깨닫는 데 긴요한 내용을 초록하여 상(上), 하(下) 2권으로 엮은 책이다. 백운경한 스님이 입적한 이후 제자 석찬(釋璨, 미상)과 달잡(達湛, 미상)스님이 1377년 청주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활자로 초간본을 간행하였다. 이후 주한 프랑스 공사인 콜랭 드 플랑시(Colin de Plancy)에 의해 반출되어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서 금속활자보다 78년이 더 앞선 『직지』(하권)는 동서양을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류의 기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유산이라는 점에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005년 『직지』 한국어, 영어 번역본을 발간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 세계도서박람회에 출품한 바 있으며 2021년 『직지』 한국어, 영어 번역 재판을 발간하였다. 2022년에는 『직지』 불어번역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의 인쇄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선불교 사상을 알리고 있다.



3. 한국의 불교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연등회는 음력 4월 8일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형형색색의 등을 밝히는 행사이다. 연등회는 매년 우리나라 전역에서 개최되는 행렬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연등회는 신라시대의 ‘간등’, 고려시대의 ‘연등회’, 조선시대의 ‘호기놀이’, ‘관등놀이’를 했다는 역사적 문헌을 통해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되 현대 문화를 반영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등회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관불의식으로 시작하여 연등행렬과 회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다양하고 다채로운 등을 손에 들고 기념 행렬에 함께 참여한다. 연등을 밝히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를 광명의 빛으로 밝히는 것을 상징한다. 이처럼 연등회는 불교 전래 이후 전승된 문화행사이자 국적과 인종, 종교와 장애의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물고 기쁨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영산재

영산재는 49재의 한 형태로 모든 중생과 영가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불교 의식으로써 범패(梵唄), 화청(和唱) 등 음악적 요소와 바라춤, 나비춤 등 무용적 요소, 연극적 요소로 구성된 종합예술이다. 영산재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영산재는 1987년 영산재 보존회가 설립되어 전승활동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태고종 봉원사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영산재는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회상인 영산회상을 오늘날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래 사흘 밤낮으로 진행되었으나, 근래에는 규모가 축소되어 하루 동안 이루어진다. 영산재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재의 구성원을 초청 및 영입하는 “도입(시련 · 재대련 · 관욕 · 조전점안 · 신중작법 · 괘불이운)”, 공양을 준비하고 올리는 “전개 및 절정(상단권공 · 식당작법 · 운수상단권공 · 중단권공 · 시식)”, 초청 제위를 전송하는 “결말(봉송)”부분이다. 영산재는 공연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닌 대중이 참여하는 불교의식이자 참선과 수행의 수단으로써 높은 가치가 있다.





신도와 신행활동



조계종은 1천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종단이다. 조계종은 신도들이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법회와 행사가 열려 출가자와 재가신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신도교육과 수계

조계종의 신도는 중현·중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수계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도교육과정은 ‘입교 → 기본교육 → 재교육/전문교육 → 지도자교육’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은 종단의 모든 사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조계종의 신도라면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전문교육기관인 사찰불교대학은 보다 전문적인 소양의 함양과 수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이며, 재교육은 신도들의 수행활동과 신심을 향상시키고 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과정이다. 신도지도자 교육은 신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모든 조계종 신도는 입교과정에서 수계의식을 통해 계를 받고 신도등록을 한다. 수계란 부처님·부처님의 가르침·승가를 말하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五戒, 불살생·불투도·불사음·불망어·불음주)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법회와 수행

한국의 사찰들은 전통적으로 음력에 맞춰 법회를 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요법회도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다. 매월 음력 초하루에 가장 규모가 큰 법회가 열리며, 보름에도 법회를 연다. 또한 매월 음력 8일 약사재일, 음력 18일 지장재일, 음력 24일 관음재일 등 각 재일에 맞춰 법회를 연다.

이와 함께 절기에 맞춰 열리는 법회로 칠석기도(음력 7월 7일), 백중기도(음력 7월 15일), 동지기도, 입춘기도가 있다. 불교의 명절로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출가절(음력 2월 8일) 성도절(음력 12월 8일), 열반절(음력 2월 15일)이 있다.

신도의 수행방법은 사찰의 법회 참석과 불공드리기, 보시, 봉사, 참선, 간경, 사경, 염불, 절, 진언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수행생활은 사찰의 법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때로는 산사의 다양한 수련회를 통해 수행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신도신행단체

전법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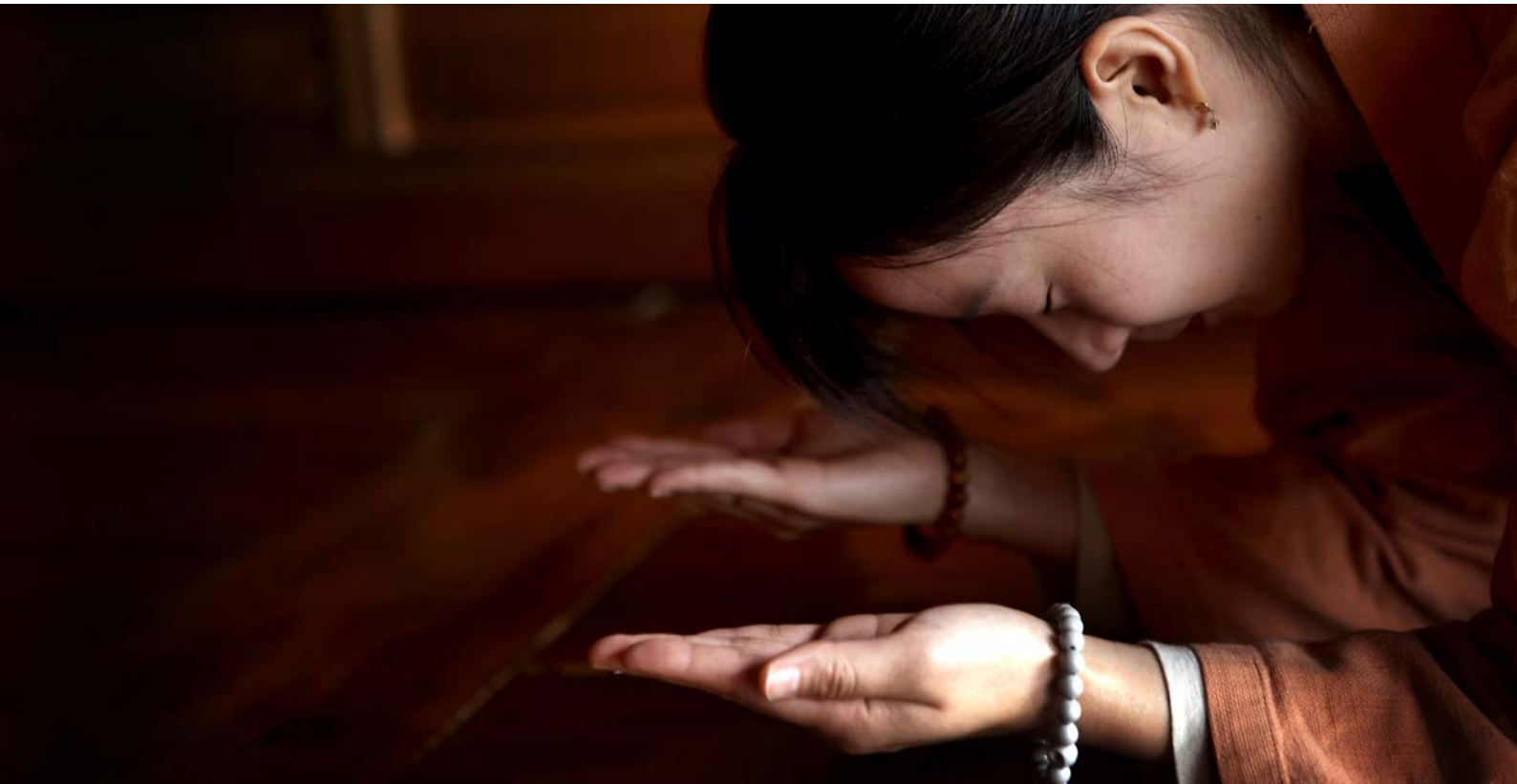
전법단은 분야별, 지역별 포교활동 진흥을 위해 승려와 재가자로 구성된 종단 직속 기구로서 경찰전법단, 교정교화전법단, 청년대학전법단, 신도시전법단, 장애인전법단, 체육인전법단, 국제전법단, 병원전법단, 어르신전법단, 연예인전법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교단체

특정 분야의 포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포교원 산하에 설치된 단체이다. 포교사단, 불교상담개발원, 국제포교사회를 포함해 10개의 단체가 포교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도단체

직장, 직능, 계층, 특수분야의 신도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단에 등록한 단체로 개별 및 지역 단위, 전국단위의 신도단체로 나뉜다. 전국 신도의 대표기구로서 종단에서 관리하는 중앙신도회를 포함하여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등 17개의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불교문화진흥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이었다. 당시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시작됐던 템플스테이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십수 년간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200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했고, OECD는 템플스테이를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 문화상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템플스테이는 현재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공식 지정된 전국 140개(2022년 기준)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불, 발우공양, 참선, 다도, 108배 수행, 스님과의 대화, 사물(四物)체험, 사찰음식 만들기, 견기명상, 숲 포행, 문화재 답사, 치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체험 기간은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당일코스부터 1박 2일, 길게는 1주일씩 진행되기도 한다. 템플스테이 사찰은 전국 140여 곳이며,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전국 28개(2022년 기준) 사찰을 외국인전문사찰로 지정해 연중 365일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ww.templestay.com

 eng.templestay.com



사찰음식



사찰음식은 1,700년의 한국불교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래 사찰음식은 사찰의 출가수행자들이 일상적으로 먹던 음식의 형태를 말한다. 사찰에서는 식재료의 재배부터 음식을 만드는 일까지 수행자들이 직접 해왔으며 모든 일을 수행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다.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에 깃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사찰음식의 정신이며, 육신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한 양을 섭취하고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사찰음식은 자연식이자 건강식이고 수행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계종은 현재 사찰음식의 전통과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조사연구 활동과 더불어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강좌, 문화행사, 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전하고, 스님들로부터 사찰음식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찰음식 전문 교육기관인 ‘향적세계’, 사찰음식 전문 레스토랑 ‘발우공양’을 운영하고 있다.

사찰음식  www.koreatemplefood.com

발우공양  www.balwoo.or.kr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가 대중들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문화재의 시각화 작업을 통해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들은 문화재 보존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되거나 단독 브랜드 개발을 통해 전통문화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본디 나로 돌아가다, 본연의 나를 되돌아보다’라는 선의 사상을 담은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불교문화상품공모전’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개발 및 발굴해 국내외에 소개하고 있다.

 www.kbuddhism.com



부처님오신날과 연등회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은 한국불교 최대의 명절이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불자들은 사찰을 찾아 관불(灌佛)의식을 올리고 연등(燃燈)을 공양함으로써 각자의 마음과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기원한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축제로, 1,200여 년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온 전통문화이다. 연등회가 열리면 불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모두 한 데 모여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연등행렬이 펼쳐진다. 화려한 연등행렬과 다양한 전통공연을 비롯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어 일반 시민들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들도 연등회를 찾는다.

연등회 기간에는 한지 전통등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통등 전시회가 청계천, 조계사, 봉은사 등에서 펼쳐진다. 본행사 1일차는 연등회 참가자들의 연희와 법회의 식으로 축제의 막을 여는 어울림마당, 서울 도심에 펼쳐지는 10만 개의 행렬등을 만나 볼 수 있는 연등행렬, 흠날리는 꽃비 속에서 손에 손 맞잡고 대동놀이를 즐기는 회향한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2일차에는 조계사 앞길에서 불교를 포함한 한국 전통의 놀이





와 공예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마당과 흥겨운 전통공연 및 마당 놀이로 이루어지는 공연마당, 연등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은 행렬과 연등놀이가 진행된다.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는 연등회의 핵심인 전통등 문화를 전승하고 있다.
전통등 전시회, 강습회,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만의 등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등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서, 2012년에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지켜야 할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www.llf.or.kr





조계종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 땅에 구현해 불국토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종단 차원에서 사회 각층의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를 설립해 환경운동,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지원활동, 종교간 갈등 해소,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남북교류 및 지원, 세계불교계와의 교류 등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각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사회활동



환경보존활동 및 탄소중립활동

불교의 핵심사상은 연기(緣起)이다.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연기의 핵심이다.

따라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은 불교가 지향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사찰은 천 여년이 넘게 수행공동체로서 예불과 염불, 수행자와 일반인들의 방문과 기도가 이루어져 온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그간 불교가 청정한 수행가풍과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산주정신(山主精神)으로 사찰 주변의 산림을 보호하는 등 산림과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수행환경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정부의 무차별적인 개발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변화 시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 보전을 위하여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의 다양한 환경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 사찰환경 침해대응
- 자연환경 보존활동 대응체계 구축
- 사찰의 공익적 가치제고 및 사찰림 보전을 위한 정책연구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 및 실천 활동
- 환경단체 연대 활동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활동

현대사회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2010년 설립된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와 2012년 설립된 사회노동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공론화하여 불교의 해결방식인 화쟁을 확산하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012년 사회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여성·인권·빈곤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중재를 위한 활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연대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가난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법회, 산업재해 등으로 돌아가신 이주 및 비정규직 등 노동자 추모법회 등을 시행해왔다. 또한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희생자 추모와 더불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단식, 오체투지, 기도법회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최근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소수자 등 사회 특정 소수자 집단을 향한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기도 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웃종교 및 종단 교류

현대 한국사회에서 종교 간 교류는 사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됐다. 조계종은 종교 간 교류와 연대를 위해 7개 종교 연합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불교 30개 종단이 함께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통해 불교계 각 종단 간의 교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활동

조계종은 불교의 자비정신 실천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조계종의 사회복지 관련 활동은 공익기부활동과 불교적 사회 복지 구현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

공익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 확산과 각종 공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기부재단이다. 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사업, 국내외 재난재해 구호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익지원 사업, 모금된 재원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배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

아름다운 동행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3년에 걸쳐 탄자니아 지역에 농업기술대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이 학교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무와송가 마을에 설립되었으며, 아프리카에 건립된 불교계 최초의 농업리더 양성전문학교다. 이 학교는 향후 탄자니아의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은 탄자니아의 소외지역 마을 개발과 아동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 및 교육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종단 차원의 전문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재단은 전국 18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우수시설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전문적 활동은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재단의 활동은 단순한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전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복지 현장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시설을 유치, 운영함으로써 종단과 지역사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복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구 분	지역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가족센터	어린이집	지역 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기타 시설
기관수	22	36	44	19	7	37	4	2	12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2022.09.01)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 지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된 자원봉사자들은 염불·골기경락·집수리·음악치유 등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려 전국의 시설과 병원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재단 산하기관을 비롯한 불교계 사회복지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교육으로 시설장, 실무책임자, 신입직원, 보육교사 연수, 회계담당자 교육 등 직급별·직무별 교육연수를 운영하고 종단산하 법인단체 대표 및 시설장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계층 지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후원모금사업인 '자비나눔 캠페인'을 통해 소외된 이웃의 생계비, 교육비, 생활비 지원을 전개하는 한편, 먹거리, 생필품, 문화나눔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비 모금 및 지원 활동은 2001년부터 꾸준히 이어오며, 생명존중과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국제 교류 및 국제구호 사업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활동은 국내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의료 및 교육 환경이 열악한 라오스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며 라오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 KOICA, KCOC 등의 단체와 협력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재난위험 경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재난구호활동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긴급재난구호활동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96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구호활동으로 첫 활약을 펼쳤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5년 조계종긴급구호단을 정식 발족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아이티대지진, 네팔 대지진 등 국내외 재난재해 발생 시 조계종긴급구호단을 통해 구호물품 지원 및 의료봉사단 파견, 긴급 재건활동 등을 진행해 많은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던 바 있다.

불교사회복지연구 개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의 자비정신을 기반으로 한 불교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황 전수조사, 학술포럼 등 불교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복지 동향에 맞춰 불교사회복지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활동도 병행 중이다.



남북불교 교류 및 지원활동

남북 불교교류

1997년 남과 북은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법회를 동시에 개최하며 교류를 시작했다. 남북 불교계는 한국 전쟁으로 소실된 금강산 신계사를 4년간의 공사 끝에 2007년 복원 완료하고 남북 불교도가 모여 부처님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다. 이후 남북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법회를 개최하고 공동발원문을 채택해서 발표하고 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를 돕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펴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내 불교문화재 보존·복원 협력사업, 남북 사찰 간 교류협력 및 북녘사찰 성지순례 등 남북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불교 교류사업이 원활하지 않지만 민주본은 남북이 하나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에 남한 불교계를 대표해서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평화통일 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과 불자들의 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본은 남북 불교교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통일을 준비해나갈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통일교육사업 및 대중참여형 기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종단의 대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불교계의 평화통일 활동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민간 차원의 통일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통일 대비 연구활동

민주본의 주요사업 중 하나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활동들이다. 현재 북한지역 사찰현황 조사연구, 폐사찰 복원 조사, 불교문화재 공동연구, 민족통일 및 남북 불교교류 정책 연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교통일담론 연구사업을 비롯해 남북 불교 관련 도서 발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제교류 및 국제포교지원

국제화시대 흐름에 발맞춰 세계 각국의 불교계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 해외의 각 불교종단 및 기관들과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해외 각국에 한국불교를 소개하고 전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위한 또 다른 노력은 한국 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일이다. 다방면에 걸쳐 조계종은 한국불교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국제행사 참석 및 교류활동

2012년 한국에서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WFB)를 개최하여 행사 기간 동안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각 불교지도자들과 함께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던 바 있으며, 2년마다 열리는 WFB총회에 조계종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개국 200명의 세계 종교계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에게 한국의 간화선 전통을 소개하고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해외불교단체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의 참석도 주요한 국제교류 활동이다. UN에서 지정한 부처님오신날 기념식 ‘베사데이(Vesak Day)’ 행사에 매년 종단 대표단이 참석하며 국제불교도연합(International Buddhist Confederation, IBC)에 함께하고 있다. 세계종교평화인회의(World Conference of Religions Peace, WCRP)총회, 카자흐스탄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Congress of Leaders of World and Traditional Religions)에도 종단 대표단이 참석하여 전 세계종교지도자들과 현안 정치, 사회적 이슈와 국제문제들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3개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한중불교 선수행체험단 교류’ 등의 국제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전통문화공연, 불교문화체험 등 불교문화를 해외에 홍보하는 ‘한국불교 세계화’ 행사를 해외한국문화원 등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데, 유네스코무형문화재 연등회 프랑스 파리 전시 및 『직지』 불어본 출간기념회(2022년), 미국 LA 한국불교문화의날 개최(2019년), 한국불교세계화 호주 시드니행사(2012년), 프랑스 파리 한국불교세계화 조계종 프랑스행사(2011년) 등이 그것이다. 국내 각국 대사관의 대사 및 직원들에게는 한국전통불교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교류를 통해 민간외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포교지원

한국의 불교문화재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출판활동도 활발하다. 한국불교의 선맥을 확인할 수 있는 ‘The Seon Masters of Korea’, 근대기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 스님의 글을 담은 ‘The Collected Writings of Gyeongheo(poem & prose)’ 등의 영어서적을 발간하였으며, 이외에도 ‘한국전통사상서 13권’을 한글과 영어로 제작 배포하였다. 특히, 2005년에 이어 2021년에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 활자인쇄본이며 한국의 선불교사상을 담고 있는 <직지심체요절> 한글·영문본을 재발간하였고, 2022년에는 불어본을 발간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계종은 한국불교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종단 공식 계간지 ‘Lotus Lantern’을 제작해 전 세계 사찰 및 주요 불교단체로 배포하고 있으며, 조계종 홈페이지 영·중·일 홈페이지(www.koreanbuddhism.net) 운영 등 국제사회에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발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 · 제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02-2011-1833

www.buddhism.or.kr

[www.koreanbuddhism.net\(eng\)](http://www.koreanbuddhism.net(eng))

한글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사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연등회보존위원회

발행번호 010105-14-2023-018